

상대방과 자신이 하나될 때 천국 이루어진다

하나 속에 기쁨, 평화, 행복, 영생 그리고 천국 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생각 속에 살아야 죄를 안 짓게 돼

자유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전체를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이 자유율법이지, 자기 것이 있으면 자유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다운 사람은 자식이 부모님의 소유라고 생각하듯이 인간의 조상이 하나님인 고로 하나님 것이 내 것은 없는 거예요. 내 것이 있다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만 그러한 사고방식이 있지 진실로 자유율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항상 하나님에게 나와 내 생명과 내 마음과 모든 전체를 하나님에게 맡겼다고 그랬죠? 그렇게 맡기지 않으면 이 영생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되는 방법이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에 하나님 되는 거지,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않고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종교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종교야 하나님의 종교이지, 인간의 종교라면 그게 하나님의 종교가 될 수 있어요? 될 수 없습니다.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인고로 마귀가 들어와서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제도가 생긴 것이지, 그 전에는 하나님이 나라는 의식의 자리에 있었던 고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내 몸과 내 생명과 내 마음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식 가운데서 살아야 그래야 인간의 생각을 할 수가 없고, 범죄도 할 수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뜻대로 살게 되는 고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병은 마음에서 비롯돼

사람이 왜 죽는지, 사람이 왜 병에 걸리는지, 그 원인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병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균이

들어와서 병이 걸리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화를 내면 화병이 생기고, 화병이 변형이 되어 다른 병이 되기도 하는 것처럼 마음에서 병이 되는 것이지, 외부에서 병균이 들어와서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에요. 외부의 균이 들어와서 병이 생기는 게 아니고, 마음이 상하면 피가 썩는 고로 썩은 핏속에서 병균이 발생되고, 발생된 병균이 번식을 해서 점점 병균이 많아지면 그것이 병이 되고, 나중에는 중병이 되어서 죽는 것이지, 외부에서 병균이 들어와서 병에 걸려서 죽는다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얘기라는 걸 바로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똑바로 가져야 되죠? 마음을 똑바로 가지고 살아야 병도 안 걸리고, 마음을 똑바로 가져야 죽지도 않는 것이지 마음을 빼앗하게 가지면 피가 썩기 때문에 자기 몸속에서 병균이 발생되어 피가 썩으면, 썩은 피가 암세포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암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썩은 피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썩은 피가 암세포를 조성 해주면 그 암세포가 자꾸 늘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가 늘어나서 온 몸에 퍼지게 되면 골격하고 죽어요. 아시겠어요?

구세주를 소유해야 구원

여러분들은 영생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을 가져야,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이 길을 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아시겠어요? 영생을 주는 하나님이 바로 구세주예요. 구세주가 영생을 주는 거지, 다른 존재가 영생을 못 줘요. 영생은 구세주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생을 소유한 구세주가 나와야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이고,



구세주 조희성님

그 구원의 문을 찾은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죠? 그러므로 구세주를 놓치지 말고 소유해야 독특한 사람이죠?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야

사람이라는 것은 절대로 자기 혼자 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예요. 가짜 주인인 나라는 의식이 생각을 주관하고 나를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그러는데 사실은 실지 주인은 하나님의 생명이예요.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몸이 전부 내 몸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몸처럼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죄를 내 죄처럼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주시기 위하여 감로이슬성신을 부어주시고 그러지, 내 몸처럼 생각이 안 되면 하

겠어요?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면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피로하고 얼마나 몸이 아픈데 그런 고통을 감수해가면서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할 수 있겠어요? 내 몸처럼 생각이 되니까 내 죄로 여기고 담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더러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라, 누구든지 지은 죄를 내 죄로 여겨라 하는 거예요. 누구의 죄도 내 죄로 여기고, 누구의 잘못도 내 잘못으로 여겨라 하는 말씀을 이 사람이 20년 전부터 말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말을 달리 하는 것 같지만 똑같은 말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말은 변용되어서 다른 표현의 말이 될 수도 있지만 뜻은 한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담과 헤와 하나님의 피로 자손대대로 내려온 피로 이루어진 몸인고로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몸이 아니고 한 몸이죠. 나무로 말하면 한 나무요, 한 몸인고로 누구든지 내 사정처럼 여기고, 누구의 죄도 내 죄로 여겨야 그게 정상이지, 남의 죄 남의 사정으로 여기면 비정상적인 생각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정상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이 되기 전의 하나님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면 하나가 됩니다. 누구든지 내 사정처럼 여기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 예다가 '남' 자만 붙이면 하나님이에요.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너와 내가 다르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인 마귀새끼예요. 마귀새끼이기 때문에 죽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길 때에, 하나님처럼 여길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는 방법이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이 되는 거지, 이제 둘이 되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 속에 천당이 있고, 하나 속에 평화가 있고, 하나 속에 믿음이 있고, 하나 속에 생명과 영이 있고, 하나 속에 영생이 있는 거죠?

하나가 될 때 영생과 천국이 완성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가 될 때에 영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될 때에 영생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못마땅한 마음을 가져도 죽게 되어 있어요. 못마땅한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요? 하나가 될 수 없는 마음은 그건 죽을죄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마음과 내 마음을 하나로 만들면, 둘이 하나가 되고, 셋이 또 하나가 되고, 넷이 하나가 되고, 다섯이 하나가 되고 이렇게 되면 천이 하나가 되고, 만이 하나가 되고, 수십 억 인간이 다 하나

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세계가 바로 천당이예요. 인류가 하나가 될 때에 천당이 건설되는 거지, 여러 사람의 마음상태까지고는 천당이 되질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승리제단 교리이죠? 교리가 복잡하지도 않고 딱 한 가지뿐이죠.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면 천당도 건설되고,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면 영생도 되고,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면 죽을병도 나아. 마음만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면 죽을병이 나아버려요. 그런 것도 몰랐죠? 이 세상에서 이런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본 말만 골라가지고 하는 것만 같죠? 이 사람은 새로운 세상을 전개하는 사람인고로 새로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 될 때 싸움과 전쟁이 없어지고 평화와 천국이 이루어져

그래서 하나가 될 때에 싸움이 끝나는 것이고, 하나가 될 때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둘이 되면 싸움이 돼요. 하나가 되면 싸움이 없어요. 전쟁도 없고 평화의 세계가 돼요. 그 평화의 세계가 하늘나라죠?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야 하늘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이 맞죠?

그러므로 집에서 내외간 둘이서 살아도 그 내외가 하나가 될 때에 그 가정이 화평하고, 하나가 될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그 가정이 천당과 똑같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둘이 되면 천당이 안 돼요. 남편 마음 다르고, 부인 마음 다르면 만날 으름거리고 싸워요. 그렇죠? 하나가 되는 방법은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따라서 움직이면 돼요. 각자 상대방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면 그대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할 줄 아는 자가 천당 가는 것이지, 그렇게 할 줄 모르는 사람, 천당 못가요. 아시겠어요?*

2001년 8월 2일 말씀 중에서

[연재] 不老不死 어떻게 가능한가



피의 작용

이 세상에는 참 신비한 일도 많다. 그렇지만 그러한 신비한 일도 알고 보면 그 인과(因果)를 잘 모르는 데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더 당혹스러움을 느끼게 된다.

여러 다양한 심령현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는데, 이번 영언(靈言)과 빙의현상(憑依現象)에 관한 사실도 그렇다고 볼 수 있다.

영언(靈言)

영언이란 영매(靈媒)나 무당을 통하여 영혼이 불어 들어와서 생전의 특징을 나타내면서 발언하는 현상이라고 말한다.

흔히 무당들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부르기 위해 방울을 흔들며 격렬한 춤을 춘다. 이때 무당의 격렬한 움직임을 통하여 무당 자신 내부의 피의 소용돌이 속에서 죽은 사람의 영과 교감을 포착하면서, 죽은 자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죽은 사람만이 알고 있는 사실을 밝히기도 한다. 이것은 반드시 죽은 사람이 머물렀던 그의 가족이나 집, 그의 유품을 매개체로 한다는 사

실에 유념해야 한다. 죽은 사람의 가족과 집, 유품은 죽은 사람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영을 쉽게 포착하게 하는 매개체로 작용되어지기 때문이다. 영매 자신은 타인의 영을 쉽게 포착할 수 있는 초능력이 있으므로 자신 내부에서 극도로 예민해진 피가 '죽은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사실 우주 공간 전부가 무수한 종류의 생각의 파동과 파장으로 가득 차 있다. 영매는 이러한 무수하면서도 고유한 생각의 파동과 파장을 잘 포착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전자 장비인 무선 전신이나 라디오도 일정한 파장을 포착하여 수신과 발신을 할 수 있거늘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어떠하겠는가? 사람 누구나 개별의 고유한 파장과 파동이 있어서 우주 공간에 아카샤 기록으로 녹음되어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영육분리설에 입각

하여 심령현상을 말해 왔던 것은 인간의 잠재된 능력을 무시하고 관찰 대상에만 집착한 까닭에 생겨난 어리석은 가설(假說)에 지나지 않는다. 잠재의식은 인류전체가 공유하고 있고 과거, 현재, 미래의 정보가 모두 담겨져 있다. 일체 우주 의식과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이상한 계기로 이것에 눈을 떠서 초능력이 주어지기도 한다.

빙의현상(憑依現象)

빙의 현상은 통상 '홀려 있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다른 영(사람)에 의해 씌워져 사로잡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다른 영에게 사로잡히면 현재 '나'라는 주체의식이 작용을 못하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몹시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A가 B에게 단단히 홀려 있다고 표현한다. 이것을 보아 영매나 무당은 의도적으로 다른 영(사람)에 의해 쉽게 사로잡힐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영매나 무당들은 신경이 예민하고 분위기의 인지(認知)에 민감한 것이 그 특징이다. 그

러한 민감성에 의해 영매들은 쉽게 죽은 사람의 영의 파장을 포착하며 자신의 몸속에서 활약하도록 하는 것이다.

영매가 입신상태(入神狀態)에 들어가거나 무당이 방울을 흔들며 춤을 추는 것은 바로 다른 영을 감지하고 불러내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인 것이다.

우리는 가끔 미친 사람을 본다. 미친 사람을 가리켜 흔히들 '혼이 나갔다'라고 하는데, 이때 혼(魂)은 사람의 생각을 주장하는 나라는 주체의식을 의미한다. 미친 사람은 나라는 것을 의식 못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미친 남자가 화장을 하거나 치마저고리를 입고 나돌아다니는 것은 여자의 의식이 그의 주체영으로 주장하여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흔히 사람의 혼이 뒤바뀌어서 인격이 변화하는 현상으로 심령학에서는 '인격의 전환'이라고 한다. 만약 인간의 주체 혼이 옆으로 밀려나고, 다른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영이 일시적으로 그 사람의 몸을 점령하고

있다면, 그 현상은 '이중인격', 또는 '다중인격'이 되는 것이다.

사람이 미치는 경우도 일종의 다른 영에 의해 씌워져 사로잡히는 빙의현상이다. 이러한 빙의현상은 마치 영육이 분리되어 있는 듯이 보이게 한다. 미치는 빙의현상은 외부의 다른 혼(영)의 침입에 의해 씌워지는 현상이 결코 아니다. 누구나 사람 속에는 헤아릴 수 없는 영이 잠재되어 있다. 그런데 나라는 주체의식이 약해졌을 때, 그중 가장 강하고 질긴 영이 영적 쿠데타를 일으켜 점령하여 들어오는 것을 미쳤다고 하는 것이다.

사람이 미치는 경우는 나라는 의식이 갑자기 심한 충격을 받는다는지 놀랄 때가 쉽다. 사람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벼락을 맞거나, 또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극심하게 받는 경우이다. 또 남들이 알면 짹짹 놀랄 수 치스런 죄를 지었다든지 했을 때 고민 고민하다가 결국 미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나라는 주체의식이 그 고통을 견뎌내지 못하고 무기력해졌을 때, 그 다음으로 강한 영의 자리매김으로 미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라는 것은 의식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영이 지배영이 된다. 전혀 다른 사람의 행세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주체영의 변화는 근본적으로 피의 상태의 변화이다. 피가 곧 마음(의식)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앞에서 누누이 설명한 바 있다. 그래서 옛날부터 신비스럽게도 사람의 핏속에 영이 들어 있다고 믿었는데, 이는 대단히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둔다.

사람의 핏속에는 조상 대대로의 영, 또 나를 위시로 해서 내 주변 사람들과의 영적인 관계망으로 형성된 영들로 가득 차 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모든 빙의현상은 살아 있는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내 정신상태와 피의 상태의 변화와 작용에 의한 것이 된다.*

김주호 기자

마음과 몸(영육) 분리될 수 없는 하나(과학적 규명2)

자신 속의 가장 센 영에게 주체영이 밀려나게 될 때 미치게 된다